

또 다른 총선 상아탑 전쟁



전남대·조선대 올해 총장선거 앞두고 분주 후보들 물밑경쟁속 ‘물’ 확정안돼 신경전도

전남대·조선대가 올해 신입 총장을 선출하면서 총장 후보들의 물밑 행보가 분주해지는 등 지역 대학가도 선거 시즌에 돌입했다.

특히 입학성 감소로 ‘생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차기 총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데다, 거점국립대(전남대)나 개교 70주년(조선대)을 맞는 대학 위상이 커 지역 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전남대, 5명 거명=지병문 19대 총장의 임기가 올 12월 20일까지인 만큼 차기 총장의 뒤를 이을 20대 총장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사해로 접어들면서 본격 시작했다.

전남대는 지난 2012년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학칙 개정으로 애초 이번 총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형식을 도입한 새로운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했었다.

현재 총장 선출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도가 예고되고

있다.

다만, 전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의 간접 선출’ 입장에 맞서 총장 직선제를 염두에 둔 토론회를 여는 등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선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선출 방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지난해 발족한 전남대 총장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관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총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대학 본부측과의 협의 절차를 고려하면 개입의 ‘물’을 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럼에도 대학 안팎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명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윤택립 전남대병원장, 정병석 전 법대학장, 정성창 전 융합인재교육원장,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병택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이다.

정성창 전 융합인재교육원장은 “출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병원장은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병석 전 법대학장은 “너무 빠르다. 뭐라 말할 수 없다”, 이병택 교수는 “고민중”이라고 했고 해외에 있는 허민 교수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조선대, 6명 경쟁 본격화=서재홍 15대 조선대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3일까지로 70주년을 맞는 대학 위상이 격상되면서 벌써 6명의 16대 총장 후보가 오르내리면서 대학 안팎에서는 “벌써 과열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선제·간선제 여부 등 총장을 뽑는 ‘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출 방식 변경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 보려는 입지자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치과대학에서만 강동완, 김수관, 윤창록 교수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출마한다”며 출마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대환 대외협력처장도 “출마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영돈 전 조선대병원장, 차용훈 전 산학협력단장 등도 “출마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움직임 속에 조선대는 지난 15일 설립동지회 주관으로 최근 ‘조선대의 리더십 위기와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총장 선거 모드로 돌입했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오수열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선출제도 변경 문제가 소수의 논의 구조속에서 결정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속에 야합이 개입될 수 있고 강력한 반대 투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총장 선출제도를 변경해보고자 한다면 제 17대 총장 선출부터 적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총장 선출 방식의 경우 직선제에 대한 시각이 우세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학 입장을 고려하면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학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조선대가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경우 총장 선출 방식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매수 남성 52명 입건…48명 송치 경찰·시청직원 등 공무원 6명 포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함께 이 업소에서 이뤄진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매수 남성 52명을 입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52명을 입건해 4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1명과 해경 1명, 여수시청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등 공무원 6명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8명 외에 3명은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소제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종지 후 수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들은 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은 확인됐지만, 속칭 ‘2차’로 불리는 여종업원과 의 상관계 증거는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명은 이 사건을 맡은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사건 발생 2주가 지나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아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제 식

구 잡싸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2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며 나중에 불기소되는 경찰관은 1차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들을 그를 봤다고 하지만 성매매를 한 여성은 성매매 사실이나 신체의 큰 흉터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경찰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제식구 잡싸기’ 등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광역수사대가 아닌 성폭력 전담인 여성청소년과에서 맡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소속이 다른 광주지방경찰청에 맡겨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소 측에서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 등 추가 증거가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종업원 A(당시 3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여주인 박모(43)씨를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박씨의 남편과 유흥주점 실장, 웨이터 등 6명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CCTV 기록, 장부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텔 추락 여성 남친 살인혐의로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9일 여자친구를 모텔 객실 창문 밖으로 밀어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일보 19일자 6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밤 10시46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D모텔 7층 객실에서 여자친구 이모(27)씨와 다룬 뒤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1층 화단으로 추락한 이씨는 온몸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단순 추락사로 여겨졌던 사고는 이씨가 숨을 거두기 전 119구급대와 병원 의료진에 “남자친구가 나를 창밖으로 밀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도 했다”고 말하면서 급반전됐다. 김씨는 사고를 직접 119에 신고한 뒤 모텔 주변 PC방에 숨어있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그러나 “생활비 문제로 다툰 것은 맞지만 나는 밀지 않았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장님이 밀린 임금 가져가라 해서…” 알바생 숨쳐 돈 ‘꿀꺽’



○…아르바이트생 혼자 일하는 편의점과 PC방만을 골라 ‘사장님이 밀린 임금을 가져 가라고 했다’고 ‘알바생’을 속이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10대가 경찰서행.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기모(19)군은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북구 신인동 A(여·52)씨의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 15만9000원을 훔치는 등 모

두 3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을 가로챘

혐의. ○…경찰은 “기군은 ‘예전에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밀린 임금을 가져 가라고 했다’ ‘주말 알바생인데 사장님께 가발 하락을 받았다’고 여성 종업원들을 속였다”며 “예전에 편의점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10대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2중 추돌사고 19일 오후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부근에서 22중 추돌사고가 발생, 2시간 동안 교통 정체가 빚어지면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선다. 경찰은 전남부터 내린 많은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읍=김진수기자 jeans@

강추위 속 화재…여수서 딸 구하려던 엄마 등 가족 3명 참변

광주 사찰 등서도 잇단 불

여수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딸을 구하려던 엄마를 포함해 가족 3명이 숨지는 등 강추위 속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5분께 여수시 읍촌면 A(49)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A씨의 아내 B(48)씨와 딸(18), 여동

생(46)이 숨졌다. 불은 주택 83.4㎡를 모두 태우고 1시간5분 만에 진화됐다.

A씨의 아내와 딸은 보일러실 입구에서, 여동생은 자신의 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날 불이 나자 A씨는 방유리창을 깨고 아내와 함께 탈출했다. 하지만 B씨는 딸을 구하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딸의 방과 연결된 복도 입구에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욕상으로 올라갈 때 아내가 딸의 이름을 하염없이 외쳤다”며 “밸브를 잠그고 내려와 보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이미 연기가 자욱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여동생은 장애인으로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해 주로 방 안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돼 주택 전제로 변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방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한 사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범당(86㎡)이 전소하고, 사무실과 식당 건물 일부를 태워 3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전날인 18일 오후 7시께 북구 용봉동 이모(여·46)씨의 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 일부와 내부에 있던 중고 컴퓨터가 불에 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회사 사정상 매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조정가)

보성,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13만평 중 5분의 1지분(26,286평)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

월산동,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은,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용 6천5백만원포함)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원 6천만원(조정가)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